

NEWS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1면 '전남 소핑몰'서 계속

특히,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량주문 및 제철 농수특산물 유통망 확장으로 전체 매출의 45%가 흡수되고 고정 거래처 등으로 판매되면서 1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로 2024년 역대 최고 매출액인 241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화순군이 직영하는 화순팜은 '주분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대박으로 이어졌다.

회원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1년 5000만원에 그쳤던 매출은 2023년 16억원, 지난해 36억 7000만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

전남도가 지난 2004년 개설한 남도장터도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5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성과를 얻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들로 22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상품성이 검증된 품목들만 입점할 수 있게 한 점이 주요했다. 남도장터는 상품의 원산지 및 식품위생 위반 등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하는 윈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운영중이다.

전남 온라인 소핑몰들의 이같은 상승세에 지역 업체들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온라인소핑몰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의 추가 입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남도와 전남지자체가 운영하는 소핑몰에 입점한 업체는 4112곳에 달하고 4만4551개의 판매 품목이 등록됐다.

▶1면 '길어지는 탄핵'서 계속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도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다.

전체 기동대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탄핵 찬·반 집회에 투입된 전국 기동대는 5462개로, 1개 부대가 6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32만7000명이 집회에 동원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25일 변론 종결된 후 22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일조차 예고되지 않았다.

'탄소저장고' 내륙습지 월출산·다도해서 발견

영암 학산면 목동리·진도 조도면 여미리·맹성리 3곳 육화·건조화 양호... "야생 동식물 서식지·오염 정화"

영암 월출산, 다도해 해상 등 전남지역 국립공원에서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내륙습지가 발견됐다.

18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발간한 국립공원 내륙습지 발굴·정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습지 가능 후보 지역 41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습지가 확인됐다.

이중 태안해안국립공원이 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개, 월출산국립공원 1개 순으로 확인됐다.

가야산·경주·계룡산·내장산 등에도 1개씩 습지가 나왔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3개 후보지 중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133-2번지와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1116번지가 습지로 판명됐다.

두 곳의 습지 면적은 각각 3만 5266.72㎡, 3740.73㎡로 선정됐으며, 갈대군락이 발달하고 있는 습지로 일부 경작지가 있었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영암군 학산면 목

동리 7-1번지가 습지로 조사됐다.

이 습지는 1만652.31㎡ 규모다. 과거 경작지로 이용됐던 이곳은 계곡 주변의 영향을 받은 습지 형태로, 버드나무, 물푸레나무, 골풀 등으로 형성됐다.

공단은 확인된 습지 주변의 지형, 옛 지명, 행정구역 등을 조합해 명칭(안)을 부여했다.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133-2번지는 '조도여미습지'로,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1116번지는 '조도맹성습지'로, 영암군 학산면 목동리 7-1번지는 '영암목동습지'로 분류됐다.

지난 2023년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발견된 광주 북구 금곡동 일원 습지는 광주 원호계곡 습지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도 내렸다.

이는 지하수면 높이, 토양 함수율 등 지표를 활용해 습지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정, 양호, 위기,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그 결과 세 곳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면적은 9571㎡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37만㎡의 습지 가능성이 나왔다.

월출산 도갑습지와 구림습지의 면적은 각각 1만1386㎡와 147㎡로, 등급은 '양호'를 받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부항리·이월리·양사리·신리·장도·배낭기미 등 6개 습지가 있다. 18만㎡의 습지 가능성이 추측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10월 21개 국립공원 중 14개 공원의 지형도, 등고선, 위성 항공사진 등을 통해 습지 분포가 예상되는 지점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실제 습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지점을 현실화하기 위해 습지 가능성이 높은 곳을 재선별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습지는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과 함께 탄소를 비축하는 탄소저장고"라며 "지난 2022년부터 습지 관리 기반 마련, 신규습지 발굴 등 연구 추진 전략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개(2025년 2월 기준)로 총면적은 74만 2086㎡다. 송태경 기자 sty1235@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 면담

유족 측 광주시 지원 감사·특별법 제정·심리치료 등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했다.

면담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박한신 유가족 대표, 이혁 대외협력본부장, 박종권 법무지원본부장, 정유찬 언론홍보본부장, 이효은 유가족대표단이사, 박철 교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유가족 대표단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수습 지원에 함께 한 광주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

련됐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광주시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 유가족 심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유가족 심리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참사 이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최대한 돕겠다"며 "광주시는 언제나 유가족 곁에서 슬픔을 나누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여순 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6개월 연장

특별법 이어 시행령 시행...전남도, 8월 31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올해 1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시행령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유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 및 다중 집합 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 사건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시행령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유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는 8월 31일까지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 061-286-7883~7888)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지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환영한다.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7465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위원 15인 이내 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

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임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